



# 이상한 사람들이 지켜 가는 '우리말'

이수연/MBC 구성작가

**하**루에 셀 수도 없이 우리 입에서 울려 나오  
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말'. 하지만  
—— 이 우리말이 우리 땅에서 얼마나 서러운 더  
부살이를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 여름에 시원한 느낌  
을 주는 '물방울무늬'는 이미 '뽕뽕이 가라'라고 불  
린지 오래고, 수산시장가서 '붕장어' 찾으려면 잘 몰  
라도 '아나고'를 찾으려면 당장 반긴다.

또 놀이터의 아이들은 '목찌빠', '구리구  
리', '췌췌췌'를 외치며 놀고 있는데도 마땅히  
이 말들을 대치할 우리말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우리말 대접이 이러니 외래어  
라고 대접이 융숭할 리 없다. '리  
모트 콘트롤(remote control)',  
'텔레비전(television)', '아파트먼  
트(apartment)'는 허리가 똑 잘린  
채 '리모콘', '테레비',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다.

혹시 이런 말들을 제대로 고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단번에 '깡깡하다'거나 '잘난 척 하는  
사람' 쪽으로 몰리기 쉽다.

이렇듯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나라  
는 유난히 '말' 대접이 소홀한데, 놀랍게도 그 선봉  
장에 선 것이 바로 국민 순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방송국'이 아닌가 싶다.

국적 불명의 조잡한 프로그램 영어 제목은 접어  
두고서라도, 어법에도 맞지 않는 '떡거리 축제'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생방송 제목으로 정하기 일쑤  
이다.

또한 재미를 준다며 오락, 교양 프로그램 할 것

없이 등장하는 '자막'에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철  
자법 틀린 자막이 등장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틀린 우  
리말을 지적하는 것은 늘 시정자란 것이다.

언제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시청자요, 그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등 상투적인 대답  
으로 일축해 버리는 쪽은 방송국이다.

심지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시청자는 '이  
상한 사람'으로 몰리기까지 한다.

부끄럽지만 필자도 고백하자면,  
작가를 시작한지도 6년이 다 돼 가지  
만 아직까지 '말'에 대한 고민보다는  
'재미'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염  
치없는 작가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  
보자면 '이상한 사람'이 조금 더 많  
아 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당장 의견이 반영되진 않아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우리말 쓰임을 지적해 내는  
'이상한 사람'들.

이들이 있어야만 방송이 우리말을 해치는 '잔인  
한' 행동을 그만 둘 것이며, 대한 민국의 후손에게  
그나마 온전한 '말'을 물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나처럼 '재미'를 위해 이리 저리 누더기  
글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한다.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은 내가 하는 '우리말'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이상한 사람이 돼보자.

